

<퍼즐모아, 바다보호> 참가 어린이 보호자를 위한 행사 안내서

행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아이에게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 개요

		
<p>가족을 잃었어요.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p>	<p>공해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상업적 어업활동에 바다동물은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p>	<p>흑등 고래에게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p>

바다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숲의 10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바다의 면적 60%이상은 주인이 없는 공해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공해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오직 1.2%뿐입니다.

이를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수 있는 유엔 글로벌 해양조약이 드디어 작년에 합의되었고, 이제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통한 조약의 발효가 필요합니다. (비준 :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

당장 나오는 거리가 먼 일 같겠지만, 해수온의 상승은 어종의 변화와 이상기후를 야기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산업적 어업활동은 해양동물 개체수를 감소시킵니다. 바다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외면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또한 해양동물은 우리 아이들을위해 지켜야하는 친구입니다.

유엔 글로벌 해양조약은 해양생물보전에 초점을 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조약이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늦어도 25년 초까지는 비준에 서명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우리나라의 빠른 비준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 모아 퍼즐을 연결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합니다. 이렇게 만든 아이들의 메세지가 공감과 힘을 이끌어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입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어린이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해주세요.

- 행사목적
 - 유엔 글로벌 해양조약(30X30)의 대한민국 비준을 응원
 - 어린이 대상 해양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각이 담긴 그림을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아이들의 메세지가 힘이 되어 정부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활동
- 행사요약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주최하는 행사
 - 사전 접수 참여자 190명의 어린이가 만드는 퍼즐 설치 구조물과 자유참여자가 만드는 바다보호 메세지 현수막 작품이 만들어 질 예정입니다. (약 300명의 어린이 참가자 목표)
 - 사전 접수 참여자 선착수 190명에게 한 해 몽당 크레용을 재 사용하여 만든 리크레용 세트와 바다보호옴상장이 증정 됩니다.

행사 참가 전 TIP!

1분 40초의 그린피스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해 봅니다.

바다가 직면한 위협,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세요. 역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바다 생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올림픽공원에 피크닉장에서 만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의 비준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보아요. (영상링크하단)

https://www.youtube.com/watch?v=88IZb2Mv5YU&list=PLR22_VDJkkK8-eJSxknnmhyO8ET48FBSi&index=2